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씨앗 심는 날

오늘은
씨앗 심는 날
섬김의 씨앗을 심어
풍요의 내일을 준비하는 날

보혈의 공로
생각하면 마음 다해 섬겨야지...
기왕지사 섬길거면 상급되게 섬기리라

오늘 기회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씨앗 심는 일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 자부하며
섬김의 씨앗 뿌려 사랑애매 맺으리라

섬기러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
본을 보여주시며 응원하시니
순종하며 따라가세 찬양하면서...



1년에 서너번 만나봉사가 있다. 늘 수고하시는 여성봉사회 회원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일 년에 몇 번은 죄송할 뿐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오면 감사함으로 섬기게 된다.

무더운 여름 취약계층 위해 쿨루프 시공 지원

구세군, 열 차단 효과 페인트 ...실내온도 낮춰 온실가스 줄인다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장민희, 이하 구세군)이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과 함께 폭염대비를 위한 쿨루프(Cool roof) 캠페인 및 '쿨루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밝혔다.

구세군과 NH농협은행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22곳을 선정하고, 하얀색 쿨루프 페인트 시공과

쿨루프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쿨루프는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반사 및 열 차단 효과가 있는 페인트를 시공하여 열 축적을 막고 건물의 실내 온도를 낮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7월 28일(수) 은평의 마을을 시작으로 무더위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사회복지시설 22곳에 쿨루프를 시공하며, 울포시, 휴대용선풍기, 여름이불, 여름 보양식인 삼계탕으로 이루어진 쿨키트 1000세트도 함께 전달한다.

구세군 장민희 사령관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살리기 캠페인을 농협은행과 함께 진행한데 이어 올해는 농촌의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쿨루프 지원을 하게 됐다"면서 "유난히 더운 여름 취약계층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며, 냉방에너지 절감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세군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세군은 1947년부터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특별협의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아 활동을 하고 있으며, UN이 2015년 발표한千年과 굶주림, 교육, 개발 등 인류와 지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관한 UN 활동에 구세군의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고 있다.



사설

만군의 여호와가 보호할 것이라

한미연합훈련은 남북대화와 무관하게 수십 년 진행 해온 동맹 차원의 방어 및 방위 훈련이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이 김영정의 주문을 전달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축소) 수용을 촉구했다.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서해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총살·화형하고도 진지하게 사과한 적도 없다.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통선선을 열었다가 끊었다가 하기를 지금까지 여섯 차례나 반복했다. 통선선이 다시 연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남북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

북한 행동에 한미대대구조 못하고 그저 처분만 바란다는 식의 행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뿐이라는 것을 그동안 수도없이 겪어왔다. 통선선 북으로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당장 열릴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은 김영정의 말 한마디에 갈팡질팡이다. 연락사무소를 세워며 남북 회담의 상징이라며 차적으로 삼던 인물들이 폭파 때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통선선 북으로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라고 연평까지 써서 북바라기에 노골적이다.

상대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다. 핵과 미사일로 중무장한 저들은 모든 포커스를 남침에 맞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 살상이 가능한 핵무기,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등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비대칭전력을 우방국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대북 방위태세를 갖추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를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이를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그보다 더욱 탁월한 비대칭전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음전도와 기도다. 우리 온 국민이 위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에 하나님이 한국을 보호해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제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간지며 뛰어들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사31:4-5)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한다

정부가 다른 다중시설들은 열게 하고, 오직 교회만 잠정적인 폐쇄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으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지켜왔다. 그런데도 교회만을 쫓아내려는 '정치방역'은 옳지 못하다.

올 2월에는 정부 당국자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린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런데도 교회만은 무조건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는가? 이는 사실상 교회 폐쇄이다.

정부가 근거도 기준도 원칙도 없는 가운데 교회에서의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운영까지 가로막고 나선 것은 매우 부당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제라도 '정치방역'을 계속 고집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반종교적인 정부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무엇보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국민들이 신앙을 통해 용기와 희망의 끈을 붙잡는 것을 진인하게 끊어내지 않기 바란다.

한국교회도 예배 문제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그 동인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로 혼란스럽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회개하고,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자랑으로 내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예배에서 '비대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국민의 어떤 기본권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중에는 이웃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비대면을 시행했다는 교회도 있을 것이다. 역시 이것도 비난할 필요가 없다.

한국교회의 과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예배에 대하여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와 다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문제에 있어, 두 목소리를 내는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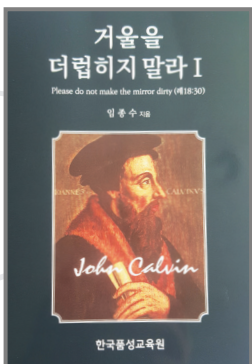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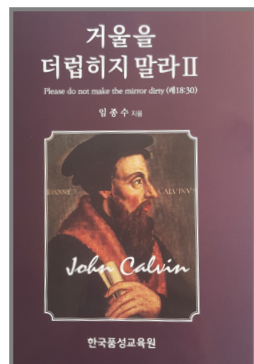
- 편집 고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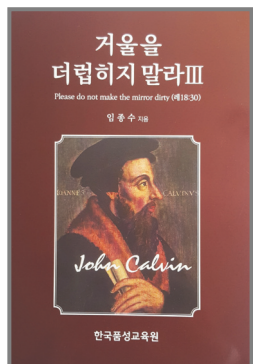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꾼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